



“또 하자고 해도 ‘신과함께’ 해야죠”

“요즘은 관객들의 소통이 엄청나게 빠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영화가 (입소문이 안 좋아도) 시간을 두고 아름답게 퇴장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실시간 소통이 이뤄지다 보니 퇴장도 빨라졌죠.”

‘신과함께’ 시리즈의 저승차사 강림 역으로 돌아온 하정우(40)를 최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1편 ‘신과함께-죄와벌’이 1440만 명을 동원한 만큼, 다음 달 1일 개봉을 앞둔 2편 ‘신과함께-인과연’ 역시 ‘흥행은 때놓은 당상’이라는 말이 나온다. 하정우는 그러나 “1편과 2편의 색깔은 전혀 달라 안심할 수 없다”며 조심스러워했다. 그는 “1편이 드

‘신과함께 2-인과연’으로 돌아온 하정우 배우·감독·화가로 신작 준비 등 열일 중 시나리오 고를 땐 사람을 기준으로 선택

라마가 강했다면, 2편은 드라마와 캐릭터가 앙상블을 이룬다”고 소개했다.

하정우가 연기한 강림은 2편에서 억울하게 죽은 수홍(김동욱)의 변호를 맡아 지옥재판을 함께하며 자신의 전생을 들려준다. 하정우는 1천 년 전의 고려 장군과 현재의 강림을 오가며 다채로운 감정 연기를 펼쳤다.

그는 “1, 2편을 함께 찍어서 2편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1편 개봉 당시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2편을 보시면 알 거예요’라는 말뿐이어서 답답했다”며 웃었다.

‘신과함께’ 배경은 대부분 컴퓨터그래픽인 만큼, 연기 과정은 쉽지 않았다. 이 영화에 출연한 대부분 배우가 어려움을 토로했던 지점이다.

“극 중 공룡이 나오는 장면 있는데, 허허벌판에서 100명이 넘는 스태프가 지켜보는 가운데 허공에 대고 소리치며 연기했어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죠. 그런 고비를 넘기면서 심지어 연기가 늘었다니까요. 하하.”

하정우는 ‘신과함께’ 시리즈가 한국영화 장르의 다양성을 제시하고, 해외에 도전할 기회를 열어줬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저는 한국의 영화인들이 영화를 잘 만든다고 생각해요. 넷플릭스에 한국 관련 콘텐츠가 올라오면 다른 나라 사람들도 놀라워한다고 하더라고요. ‘신과함께’는 세계관 역시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 사람들이 관심 있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이야기라서 통한 것 같습니다.”

그는 앞으로 3, 4편이 만들어져 출연 제의가 온다면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바쁜 스케줄을 고려한다면, 몇 년은 기다려야 할 듯하다. 하정우는 다음주부터 신작 ‘클로젯’ 촬영에 들어간다. 연출은 자신의 데뷔작 ‘용서받지 못한 자’ 촬영 당시 녹음기사를 했던 김광민 감독이 맡았다. 중앙대학교 동문이다. 그는 “용서받지 못한 자’ 때는 학생시절 작품이라 정말 열약했다”면서 “김 감독은 당시 입대 하루 전까지 ‘용서받지 못한 자’ 촬영장에서 녹음 기사로 일을 했었다. 오랜만에 만나서 일할 생각에 설레임이 남는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그는 또 백두산 화산 폭발을 다룬 재난 영화 ‘백두산’과 강제규 감독의 신작 ‘보스틴 1947’에도 캐스팅됐다. 올해 하반기에는 영화 ‘태이크 포인트’(기존 제목 PMC) 개봉도 앞뒀다.

영화 ‘롤러코스터’(2013), ‘허삼관’(2014)을 연출한 감독이기도 한 그는 신작 준비도 진행 중이다. 그는 차기 연출작에 대해 “케이퍼 무비를 표방하는 코미디 영화”라며 “인문사 기자들의 이야기”라고 귀띔했다.

화가로도 활동 중인 하정우는 개인 전시회 ‘하정우: VACATION’도 열고 있다.

“저는 주로 인물화를 그려요. 배우로서 캐릭터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에게 대해 궁금증이 많기 때문이죠. 영화를 통해 보여줄 수 없었던 것을 그림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나를 읽어주세요 하는 마음이라고 할까요.’ 배우로서 작품을 선택하는 기준 역시 ‘사람’이라고 했다.

“시나리오를 고를 때 이야기 자체가 많은 사람과 나눌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체크해요. 그리고 시나리오 못지않게 만드는 사람들을 중요하게 보죠. 시나리오가 좋아도, 그것을 표현하는 사람들의 그릇이 작다면 무용지물이거든요.”

/연합뉴스

“배우 아닌 가수 유준상입니다”

싱글 ‘서든리’ 내달 2일 발표

영화와 뮤지컬, TV 드라마를 누벼온 배우 유준상(49)이 오랜만에 가수로 돌아왔다.

26일 소속사 프라이빗커브에 따르면 유준상은 오는 8월 2일 새 디지털 싱글 ‘서든리’(Suddenly)를 발표한다.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준상의 ‘가수’ 경력은 꽤 오래됐다. 음반회사 주네스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기타리스트 이준화(29)와 ‘제이앤조이 20’(Jn.Joy20)이라는 듀오를 결성한 게 벌써 5년 전이다. 두 사람은 여행을 주제로 지금까지 8장의 앨범을 발표했다.

유준상이 솔로로 나선 이번 신곡은 사랑을 기다리는 심정을 산뜻하게 풀이한 노래다. 영국의 유쾌한 밴드 마마스건의 보컬 앤디 플랫츠가 작곡을 맡아 더욱 눈길을 끈다.

프라이빗커브는 “레트로한 관악기 사운드로 시작되는 인트로가 세련된 멜로디 라인과는 상반되게 복고적인 향수를 자극한다”며 “유준상의 감성적이고 담백한 보컬톤과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인생파운데이션, 직접 만들었어요”

가수 홍진영, 화장품 브랜드 ‘홍샷’ 론칭

트로트 가수 홍진영(33)이 사업가로 변신해 화장품 브랜드 ‘홍샷’을 론칭했다.

27일 소속사 뮤직K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홍샷은 제이원 코스메틱과 손잡고 기획과 연구·개발, 생산까지 마친 브랜드다. 원샷파데, 휴대용 컨실팩트, 민낫크림, 틴트 4개 라인을 먼저 선보인다.

홍진영은 지난 3월 tvN ‘인생술집’에 출연해 완벽한 화장법으로 화제를 모았다. 술을 마신 뒤 목덜미는 새빨갛게 변했지만, 얼굴은 뽀얗게 유지된 것. 어떤 브랜드를 쓰느냐는 문의가 쏟아지자 홍진영은 유튜브 방송에 비법을 공개하기도 했다.

홍진영은 “내가 먼저 믿고 쓸 수 있는 화장품, 여성에게 진짜 필요한 화장품을 만들고 싶었다”며 “지금까지 파운데이션, 컨실러, BB크림 세 가지 제품을 섞어 발랐는데, 그런 불편함을 보완한 한 번에 바를 수 있는 파운데이션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는 31일 밤 9시45분부터 롯데홈쇼핑에 특별 출연해 ‘홍샷’을 판매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3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 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살맛나는 세상	35 닥터 365 40 나도 엄마야
[9]	30 KBS 뉴스	00 파도야 파도야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사생결단 로맨스(재)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다큐 공감(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끝까지 사랑(재) 40 너도 인간이니?(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사생결단 로맨스(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열린공간 토크 Talk
[1]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빛고를 행복아카데미		30 차츰우물 만국 유람기	55 닥터 365
[2]	50 콘서트 필(재)	00 KBS 뉴스타임 10 영화가 좋다(재)	25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00 뉴스브리핑
[3]	40 공감다큐, 사람(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사이닝스타 55 뽀뽀뽀 모두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0 비밀과 거짓말(재)	00 토크 콘서트 화통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살림하는 남자들(재)	00 5 MBC 뉴스 2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0 생방송 빛날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7]	00 KBS 뉴스 7 35 우리말 겨우기	50 끝까지 사랑	15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10 생방송 TV블로그 폼지락
[8]	25 내일도 맑음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차츰우물 만국 유람기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 9			
[10]	00 가요무대	00 너도 인간이니?	00 사생결단 로맨스	00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11]	00 KBS 뉴스라인 40 다큐세상	10 안녕하세요	10 MBC 스페셜	10 통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부
[12]	30 이웃집 찰스(재)	35 비바 K리그	10 세상의 모든 사람 스페셜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우간다 르완다 르제르레일 열대우림〉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두부 소시지〉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2:10 극한직업 스페셜 13:00 다큐 오늘 13:10 글로벌 가족정착기-한국에 산다 13:40 배워서 남줄람(재) 14:30 몬카트(재)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15:15 파프리카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15:45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6:15 똑딱맨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 07: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07:30 띠띠뽀 띠띠뽀 08:00 당동당 유치원1~2 08:30 몬카트(재) 08:45 방귀대장 뽕뽕이 09:00 뽕뽕뽕 뽕뽕로 09:15 뽕뽕로 노래해요 09:30 우리는 비트몬스터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6:45 당동당 유치원1~2(재) 17:15 마사와 곰 17:30 띠띠뽀 띠띠뽀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5 19:00 몬카트 19:30 EBS 뉴스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20:40 세계테마기행 〈꿈꾸던 여름 캐나다 동부 1부 신들의 정열〉 21:30 한국기행 〈오지의 여름 1부 내린천 하늘 아래〉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부모성적표 스페셜 23:55 배워서 남줄람(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30일(음 6월 18일 丁卯)	
	36년생 남의 일에는 나서지 않는 것이 옳다. 48년생 고통은 따르지만 득이 되는 일이다. 60년생 서둘러야만 겨우 이뤄낼 수 있다. 72년생 상대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시점에 놓이게 될 것이다. 84년생 유의한다면 미흡한 점을 찾아낼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46, 80		42년생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로 보람을 느끼게 된다. 54년생 여러 사람의 입장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원만하다. 66년생 끝이 싱거울 수도 있음을 알자. 78년생 방법이 확실해야 가능성이 높다. 90년생 소홀해서는 안 되었다. 행운의 숫자 : 78, 61
	37년생 탄력적으로 대처한다면 쉽게 유리한 점을 획득할 수 있다. 49년생 준비해 뒤야만 대처하기에 용이하다. 61년생 진전이 있다. 73년생 핵심 정곡을 찔러서 처리할 수 있는 해안이 절실하다. 85년생 쉽게 관철 될 수 있는 순조로움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30, 34		43년생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55년생 걸음으로 웃고 있지만 속마음은 결코 편지 않을 것이다. 67년생 상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 주는 것이 순조롭다. 79년생 기조에는 변함이 없으리라. 91년생 조급해 하지 않는다면 길운을 맞으리라. 행운의 숫자 : 27, 76
	38년생 간단히 풀릴 것이다. 50년생 짐차 해야만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62년생 각별히 신경 쓰자. 74년생 북덕성이 멀리서부터 비취고 있으니 상당한 결실을 도출하는 형세로다. 86년생 제3자의 말에 따라 좌우될 필요는 전혀 없다. 행운의 숫자 : 53, 67		44년생 뜻밖의 일로 인해서 하루 종일 매달릴 수다. 56년생 봄날을 맞이하리니 기쁘게 경사라 할만하다. 68년생 고통은 따르지만 득이 되는 일이다. 80년생 사소한 것에서 비롯된 균열이 염려된다. 92년생 지연 되어 왔던 일의 풀이가 트이리라. 행운의 숫자 : 10, 02
	39년생 하루가 다르게 변할 수도 있다. 51년생 협력하여 초저한다면 능률을 배가할 수 있다. 63년생 근본적인 처방을 하지 않는다면 불협화음이 생긴다. 75년생 장애물이 보이거든 우회하는 것이 용이하다. 87년생 단단히 각오하고 있어야겠다. 행운의 숫자 : 50, 04		45년생 엄밀하게 일하자. 57년생 어떠한 대국에 임하더라도 기본 구도를 고수하라. 69년생 진정한 가치에 대해 서 인정할 줄 알아야겠다. 81년생 막연한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무방하다. 93년생 예의 주시한다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96, 27
	40년생 성과가 배가 되리라. 52년생 모색하다보면 속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64년생 희비가 엇갈리는 하루가 될 것이니 감내하고 지내자. 76년생 마무리가 완벽해야만 한다. 88년생 사치미를 떼고 태연하게 인행하는 이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43, 90		34년생 두서없는 변수로 인해서 감피를 잡을 수 없었다. 46년생 뚜껑을 열어보면 실망할 것이다. 58년생 깊숙이 있는 인식의 계기가 될 것이다. 70년생 대박으로 인해서 부가적 이익이 따르나. 82년생 목표에는 못 미치겠지만 괜찮다. 행운의 숫자 : 83, 23
	41년생 요령이 필요하다. 53년생 활로가 개척 될 것이다. 65년생 처음에는 생소 하더라도 자주 행하다 보면 익숙해질 것이다. 77년생 맥 빠지게 하는 이가 있을 것이다. 89년생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거나 불만족스러운 날이 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64, 10		35년생 적나라하게 깨닫게 된다. 47년생 지나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59년생 여유를 갖고 조망할 필요가 있다. 71년생 경계심을 버리고 편하게 대해도 된다. 83년생 능력을 과신하거나 상황을 낙관한다면 위험을 자초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68, 91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사랑” ☎010-9790-8237